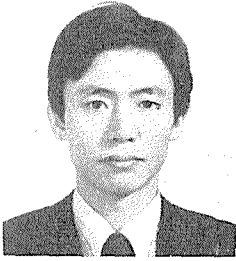


油價引下와 韓國經濟



李 根 京

(經濟企劃院 綜合企劃課 · 行政事務官)

I. 우리經濟에 미치는 得失

公 示油價가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5 달러引下되었다. 高金利와 緊縮, 結果的인 世界不況이 떨어질 줄 모르는 油價마저 침몰시켰다. 지난 79年 油價가 크게 오른後, 이어 國際金利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先進國의 意圖의인 対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高金利와 緊縮앞에서 油價가 맥을 못추고 떨어진것은 앞으로 油價展望이 先進國의 政策方向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暗示해 주고 있다 하겠다.

어쨌거나 油價引下는 石油依存度가 55%나 되는 우리 經濟로서는 다행한 일이며, 綜合的으로 볼 때, 有利한 面이 크다고 생각된다. 우선, 外貨節減만 하더라도 每年 180百萬배럴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5달러면 간단히 9億달러가 節減된다. 이는 所得側面에서 보면, 要素投入 없이 9億달러所得이 거저 생기는 것과 비슷한 結果가 생긴다. 9億달러면 82年 GNP가 662億달러이니까 약 1.5%의 GNP成長效果가 發生한다.

石油를 輸入하는 國家는 모두 이러한 所得移轉效果가 發生하여 成長이 促進되고 따라서 輸入도 增加가 期待된다. 非產油國에 대한 輸出環境이 好轉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輸出이 增加

하리라 予想되는데 그 정도는 產油國에 대한 輸出과 建設活動의 위축을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의 輸出市場構造가 產油國과 非產油國이 1:5정도로써 非產油國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輸出은 늘고, 輸入은 줄게되어 國際收支는 改善이 되며, 物價 역시 油價 下落으로 安定이 되어 結局 輸出, 成長, 國際收支, 物價는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部門別로는 애로를 겪게될 部門도 있고, 우리가 警戒를 늦춰서는 안될 分野도 있다. 重要한 比較優位産業의 하나인 海外建設의 위축이 予想된다. 受注殘額 300億달러以上, 고용인원 17萬名을 保有하고 있는 海外建設은 새로운 活路를 찾을 때까지 當分間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무엇보다 油價引下가 에너지節約努力을 弛緩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우려가 있다. 第1次石油波動後 에너지節約努力을 소홀히 한 結果, 第2次波動吸收에 相當한 代價를 支払한 經驗을 敎訓삼아야하며 適正한 油價는 이런 見地에서 要請된다. 稅取결함도 애로요인중 하나이다.

1,000億원 内外의 追加的인 稅取결함은 安定的 通貨管理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物價安定을 저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

II. 国内油價에 30%反映한 背景

油價下落分은 國內油價反映을 통하여 家計와 企業에 全部 還元하지 못한 것은 經濟運用全般의 側面에서 不可避한 面이 있다고 생각된다.

家計와 企業에 還元하면, 당장의 便益과 收益性은 多少 改善이 기대된다. 全體的 側面에서 그 效果는 극히 制限的이다. 消費者 惠澤은 油價引下가 結局 企業을 통해 消費者價格에 反映된다고 할 때, 취약한 市場構造를 감안하면, 反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지난 2年間 國際原資材價格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國內價格은 같은 幅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消費者價格에 全部 反映한다고 前提해도 消費者物價는 0.2% 直接引下效果에 불과하다. 또한 消費者價格에 反映, 國內需要를 자극하는 것을 최근의 景氣好轉狀態, 國際收支 및 外債감안시, 不安한 一面을 지닌다.

企業에 많은 部分이 還元되면, 收益性이 向上되어 投資를 늘릴 수 있는 余力을 지니게 되고, 競爭力向上에도 利用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增加된 利潤의 投資直結이 不確實하고, 競爭力向上, 즉 原價節減에 使用한다 할지라도, 直接的인 效果는 製造等の 에너지의 原價比重이 6%水準이므로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限界가 있다.

무엇보다, 國內油價에 많은 部分을 配定하는 것은 에너지多消費産業에 가장 큰 惠沢이 들어가게 되는 結果를 초래하며, 에너지節約努力을 解弛하게 할 우려가 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事情, 그리고 油價가 언젠가 다시 上昇할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의 節約은 추호도 弛緩될 수 없는 課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相当比率을 貯蓄으로 吸收하여 에너지節約을 期하고, 에너지節約産業, 直接打撃받는 部門, 經濟脆弱部門(中小企業 등) 支援등에 活用하고, 油價上昇時에는 貯蓄分을 回収, 一定期間동안 國內油價를 安定시킬 수 있는 緩衝準備를 갖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Ⅲ. 輸出競爭力 弱화問題

輸出競爭力問題는 石油化學産業같이 石油製品을 原材料로 하는 産業과 一般産業같이 石油

를 燃料로 사용하는 産業으로 구분하여 高찰될 수 있다. 石油化學産業은 現在 나프타 價格이 國際水準이고, 油價引下時에도 國際水準으로 유지할 方針이므로 競爭力은 하등 損傷되지 않는다.

石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一般産業의 경우, 問題는 價格引下로 全産業의 競爭力을 끌고루 늘려주느냐, 아니면 가장 發展이 時急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産業의 競爭力을 늘려 주는데 우선 使用하느냐의 選擇으로 理解될 수 있다.

國內油價가 많이 내리면, 에너지多消費型 産業이 에너지節約型産業에 비해 相對的으로 有利해진다는 點, 그리고 에너지節約型産業의 競爭力을 時急히 提高하여 産業構造改編을 早期에 完成하는 것이 先進經濟로 一步 接近하는 過程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一部를 留保貯蓄해서 에너지節約型産業에 支援하는 것은 逆說的으로 오히려 衡平에 附合하면서, 産業의 健實한 發展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留保貯蓄은 어떤 형태로든 産業에, 結局은 家計에 歸着되는 것이므로 産業別, 時間別 配分에 차이가 있을 지언정, 總體的으로 볼 때, 그 效果는 競爭力脆弱部門에 使用함으로써 極大化될 수 있다는 點을 省察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國內油價를 내릴 수 있는 國家는 행복한 國家에 속한다. 브라질, 필리핀, 印度 등은 經濟가 어려워, 換率이 크게 올라 오히려 國內油價를 올려야 하는 형편에 있다. 잘 사는 이탈리아도 國內油價引下를 据置하고, 油價下落全部를 稅金으로 吸收했다. 프랑스는 小幅 反映에 그쳤다.

美國은 에너지稅를 多少 올려 造成된 資金으로 교량등 土木工事を 일으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伝해진다. 隣近의 日本도 電力料金を 한 푼도 안 내릴 것을 闡明했다. 台灣은 國內油價를 平均 6.6% 引下했는데, 이는 油價下落分의 46%수준이며, 나머지 54%는 稅金으로 吸收했다. 國內油價에 全部 反映한 國家는 油價가 市場機能에 一任되어 있는 西獨, 네덜란드 등 몇 國家에 不過하다.

Ⅳ. 留保貯蓄分의 用途

留保貯蓄은 關稅와 基金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關稅와 基金은 다음과 같은 用途에 使用된다.

關稅는 5% 賦課되며 全額 油價引下에 따른 稅收補填에 使用된다. 나머지는 石油安定基金으로 吸收되며, 造成되는 資金은 今年에 約 2千億원으로 推算된다. 全額 에 너지關聯事業에 投入되는데 石炭備蓄및 에너지節約事業에 5百億원, 電源開發事業에 1千億원, 水力發電 建設 등 土木建設事業에 5百億원이 各各 支援된다.

石炭備蓄및 에너지節約事業은 炭鑛의 資金難을 緩和하고, 지속적인 適正生産維持로 炭鑛勤勞者의 고용기회를 確保토록 中小民營炭鑛으로부터 150萬M/T의 石炭을 購買, 備蓄하고, 에너지節約事業은 에너지節約機資材生産施設및 新開發 中小에 너지節約施設擴充과 建物の 断熱化 施設支援에 重點을 두되, 主로 中小企業銀行을 통해 융자토록 하여 中小企業의 에너지節約을 지원하는데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水力發電 建設 등 土木事業은 原油價 下落到 따른 中東產油國의 建設受注減少에 따른 建設業體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遊休海外建設 人力에 고용기회 創出을 위해, 그리고 低廉한 電源開發促進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具體的 事業計劃은 現在 成安中에 있다.

石油安定基金에서 電源開發事業을 支援하게 됨에 따라 國民投資基金에서 생기는 可用財源 約 1,000億원을 延拓輸出에 4百億원, 機械 및 電子部品生産에 6百億원씩 各各 支援한다. 延拓輸出은 鑄物類, 藥品, 照明器 및 光学機械, 計測器, 醫療用機器 및 鉄鋼製用器 등 中小企業製品輸出金融支援에만 專用하고, 機械 및 電子部門支援은 中小企業銀行을 통해 中小企業體의 老朽施設改替 및 中小電子部品業體의 施設資金과 品質向上을 主로 支援할 計劃이다.

V. 国内油價調整内況

油價下落分 30%를 反映하면 国内油價는 平均 4.76% 引下된다. 国内油價引下 要因은 原油價下落反映分과 이에 부수되는 運賃 및 附帶費, 金融費用 등의 節減分을 포함하고, 여기에 最近의

換率引上分을 差減하여 計算된다.

油種別로는 나프타價格을 今年 3個月 동안 現物市場의 最低價格수준으로 引下하고, 灯油, 輕油에 소폭 반영하고, 그리고 殘余分은 産業用 燃料인 bunker-C油에 反映한다. 이러한 原則을 적용하면, 나프타價格 5.2%, 灯油, 輕油 2%, bunker-C油 7.5%, 引下된다.

bunker-C油價格이 引下되어 電力料金 역시 平均 3.3% 引下된다. 이러한 調整原則은 一定한 범위 안에서 消費者惠澤을 配慮하면서 産業의 경쟁력을 最大限 支援하기 위한 苦心의 結果이다.

VI. 期待되는 效果

油價引下分의 一部를 留保한 것을 나라經濟 全体를 잘되게 하려는 努力으로 理解돼야겠다. 이번 措置로 期待되는 效果는 다음과 같다.

經濟成長은 에너지節約型 産業支援으로 成長基盤이 強化되고 有望分野의 投資 및 生産이 擴大됨으로써 促進이 기대된다.

輸出伸張 및 外債減少가 期待된다. 機械, 電子部品輸出增大와 延拓輸出의 擴大로 輸出伸張이 기대되고, 油類輸入節減, 機械輸入의 減少로 國際收支赤字幅이 줄어들어 이에 따라 外債增加幅이 축소될 것이다.

고용은 海外建設鈍化에 따라 줄어드는 海外勤勞者 및 一部 産業에서 發生하는 轉業 勤勞者에게 直接的으로 就業機會를 마련하게 되고 經濟成長이 促進되고 輸出이 신장됨에 따라 全般적으로 고용事情은 好轉될 것이다.

物價 및 消費者惠澤은 未洽하나 産業用 油類價格下落으로 産業製品의 價格安定이 期待되어 間接적인 惠澤을 받게 될 것이고, 長期的으로 海外要因에 의존하는 不安定한 物價體質을 改善할 수 있는 緩衝裝置가 마련되어 構造的인 物價安定基盤이 더욱 다져지게 됨으로써, 消費者에게 결국 惠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結局 이번의 調整案은 短期的으로는 受惠對象에 따라 受惠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長期的으로는 모두 그 效果가 國民一般, 即 消費者에게 귀속됨으로써, 보다 많은 惠澤을 주기 爲함에 있다.

Ⅶ. 長期油價展望과 対応方向

80年代까지는 油價의 安定이 予想된다. 自由世界原油需給事情이 均衡을 유지하리라 予想되기 때문이다. 需要側面에서 보면, 우선 世界經濟回復의 進展이 油價引下가 多少 도움이 되더라도 完만하고 基本的인 低成長基調를 벗어나기 어려우리라고 豫상되어 原油需要增加는 낮은 水準에 머물 것이다. 本稿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先進國의 政策向方이 방만한 政策運用으로 인플레이容認하는 需要刺戟策을 적극적으로 採択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經濟構造 역시 生産性低下, 技術革新鈍化, 人口의 高齡化 등 構造的인問題累積으로 成長에 限界가 予想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代替에 너지開發은 原油價가 25달러以上인 限, 계속 進展이 期待되고 많은 國家가 油價下落分의 一部를 貯蓄으로 吸收하고 國內油價는 小幅引下한 點, 그리고 썬련 등 共產圈國家가 80年代中盤 原油輸入國으로 된다는 一部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90年代初까지는 自體生産을 늘려 自體需要를 大部分 충족 하리라는 予想을 감안하면, 自由世界의 原油需要는 80年代에 걸쳐 年 1%以內의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供給側面에서는 OPEC이 財政 형편상 減産에 限界가 있고, 멕시코등 非OPEC國家역시 계속 原油生産을 擴大하리라 予想되어 自由世界原油供給量은 年 1%水準以上이 增加될 전망이다.

이러한 需給事情을 감안하면, 80年代에는 實質油價가 0~1%의 完만한 上昇에 머물지 않을까 予想되나, 90年以後에는 需要累積이 되어 需給事情이 逼迫해지고 OPEC生産擴大로 OPEC生産量이 全體供給의 50%以上을 차지하게 되면 實質油價는 높은 上昇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今年, 來年中에는 供給過剩現象이 지속되어 83年에 형성된 油價가 名目的으로 維持될 것이다.

이러한 油價展望을 前提로 할 때, 世界經濟는 83~84년에는 物價安定, 金利安定과 함께 成長이 回復되는 樣相을 보일 것이다. 85年 以後부터 油價가 實質로 0-1%, 名目으로 5-6%의 正常的인 上昇軌道를 찾게 되면, 成長, 交易量

은 回復이 持續되더라도 物價는 正常水準인 5%수준에 接近하게 되고, 金利역시 微弱하나多少 上昇이 되지 않을까 展望된다.

以上과 같은 國際條件變化를 고려할때, 國內經濟는 成長回復이 계속 進展되면서 物價는 安定되고, 國際收支均衡은 앞당겨 질 것이다. 85年以後에 世界經濟가 교란없이 正常的인 상태로 들어서면, 國內經濟는 5%수준의 先進國水準의 物價上昇과 함께, 8%수준의 成長回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対応方向으로서는 우선, 油價安定이 그동안 쌓아온 安定, 節約, 合理化努力을 弛緩시켜서는 안되고, 이를 오히려 先進經濟의 早期達成을 위한 契機로 昇化, 發展시키도록 諸般施策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油價安定이 現在는 不安한 상태이므로 油價安定이 定着된 今年 下半年中에는 関稅, 基金吸收分의 長期的인 活用計劃을 수립해야 하리라 思料된다.

에너지對策으로는 基本的인 에너지節約, 脫石油政策의 持續이 要請된다. 에너지 彈性値를 0.78水準 以下로 잡고, 石油依存度를 現在 55% 수준에서 87년에는 46%까지 낮춰가야 할 것이다. 電源의 石油依存을 획기적으로 縮少해 나가기 위해 既存 原子力發電所建設計劃 (91년까지 12期 完工)을 착실히 推進하면서 水力發電所建設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原子力 및 水力發電이 擴大되면 90年代 初까지는 全體發電量의 半 以上을 占有하리라 予想되는데, 이렇게 되면, 發電單價는 現在의 半水準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온다.

産業對策으로는 에너지節約型産業을 적극 육성하는 基本方針을 계속 堅持하면서 油價安定으로 予想되는 造船 및 플랜트 市況變化에 彈力性있게 對処해 나가는 한편, 石油化學産業의 競争力變化를 예의 주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海外建設分野에서는 85年以後부터 世界經濟와 油價가 正常的인 狀態를 回復하게 되면 意外로 市況이 好轉될 可能性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고 技術集約的인 플랜트建設을 擴大해 나가는데 努力의 傾注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